

한국전쟁의 기억과 장소 연구*

-박완서 소설을 중심으로-

이평전**

|| 차례 ||

- I. 한국전쟁의 회상과 집단적 기억
- II. 자전적 서사와 기억의 자장
- III. 고향과 기억, 복원된 정체성
- IV. 신체와 기억, 기억 장소
- V. 결론

【국문초록】

이 논문은 박완서 소설 속 한국전쟁의 기억 양상에 대해 살피고 있다. 대부분의 선행연구에서 한국전쟁에 대한 박완서의 기억은 개인적 회상의 차원에서 논의되어 왔다. 그러나 작가의 소설에 나타난 기억은 순수한 사적 기억이라기보다는 집단적 기억의 자장 안에 놓인 회상의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이때 기억은 강요된 집단기억이 무엇인지를 증언하는 것으로 박완서는 한국전쟁에 대한 기억의 복원을 통해 특정한 사건과 장소에 남아 있는 집단적 상처와 억압, 그리고 그 치유과정을 추적하면서 여전히 유효한 민족 집단의 비극에 다가선다.

박완서는 전후 반공 이데올로기의 억압 속에서 주체의 내면을 왜곡하고 개인의 성찰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집단기억의 폐쇄적이며 억압적인 기억에 주목한다. 당대 집단의 이해와 필요에 따라 기억을 선별적으로 재구성하는 집단기억에 저항하면서 더 이상 사적인

* 이 논문은 2013년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NRF-2013S1A5A8024027)

** 서원대학교 교양학부 조교수

체험에 한정되지 않는 특수한 역사적 국면, 예컨대 일제 식민지, 한국전쟁, 반공주의에 입각한 군사독재 체제 같은 시대 상황과 마주한 주체로서의 개인을 회상하는 것이다. 이는 역사적 계기로 인한 억압의 기억, 은폐되고 억압된 정체성을 현실의 맥락에서 회상하고 복원하는 일이다.

또한 작가는 집단 기억의 생산 과정을 탐색하면서, 기록되는 것과 지워지는 것, 기억되는 것과 망각되는 것의 대비를 통해 회상의 실체에 다가선다. 이를 통해 강요된 지식과 앎 속에서 무시되거나 폄하된, 차별화되어 흩어졌던 기억들을 조립하고 무엇이 기억되고 어떤 것이 침묵되는지, 왜 기억이 부인되고 망각되는가를 구체화 시킨다. 그것은 ‘고향’을 기억함으로서 정체성의 복원을 시도하고, 전쟁의 상흔을 간직한 신체를 회상함으로써 집단적 기억과 당대의 역사적 사실을 드러내는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

주제어: 한국전쟁, 기억, 회상, 사적 기억, 집단 기억, 장소, 반공 이데올로기, 망각, 재현

1. 한국전쟁의 회상과 집단적 기억

박완서는 1970년 『여성동아』에 『나목』을 발표하고 등단한 이래, 2011년 집필을 마감할 때까지 실로 다양한 층위의 작품을 지속적으로 발표해 왔다.¹⁾ 그녀의 소설은 한국전쟁의 체험을 환기시키고 1970년대 산업화 이후 중산층의 허위 의식, 가부장적 질서와 모순에 대한 비판 의식을 드러내는 등 한국 현대사의 중요 지점에 내재한 모순을 섬세하게 그려낸다. 또한 풍자와 분노, 때론 따뜻한 휴머니티가 있는 언어를 매개로 미학적 감동을 주는 유려한 문체를 지닌 작가로 평가되기도 한다. 이를 반영하듯 1991년 『엄마의 말뚝』을 중심으로 논의된 『작가세계』 특집 이후 박완서에 대한 관심은

1) 박완서는 15권의 장편과 11권의 단편 소설집, 다수의 산문과 동화를 창작했다. 세계사에서 간행한 박완서 소설전집 11권과 전집에 포함되지 않은 『그대 아직도 꿈꾸고 있는가』, 『그 많던 싱아는 누가 다 먹었을까』, 『그 산이 정말 거기 있었을까』, 『아주 오래된 농담』, 『그 남자네 집』 등이 있다.

줄곧 계속되고 있다. 흥미로운 것은 『나목』, 『목마른 계절』(1971-72), 『부처님 근처』(1973), 『카메라 워커』(1975), 『엄마의 말뚝』(1980-1991)과 『그 많던 싱아는 누가 다 먹었을까』(1992), 『그 산이 정말 거기 있었을까』(1995)로 이어지는 박완서의 창작 활동 전 기간에 걸쳐 ‘한국전쟁’이 반복해서 기억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하루 밤새 인공기와 태극기가 자리바꿈해 깃대에 매달리던 서울에서 겪은 전쟁 체험을 두고두고 ‘곱씹어’ 이야기”²⁾하면서 ‘한국전쟁’을 기억한다. 이제 전쟁을 기억하는 방식은 박완서 소설을 이해하는 주요한 경로라는 점에서 그 면면을 주의 깊게 살필 필요가 있다.

기억과 관련한 주요 논의를 살펴보면, 먼저 『나목』을 중심으로 작가의 자전적 전쟁 체험이나 전쟁의 비극을 증언하려는 욕망을 한국전쟁과 분단 현실에 초점을 맞춰 연구한 것을 들 수 있다.³⁾ 이들은 작가가 전쟁 체험을 반복해서 주제로 삼는 것에 주목한다. 전쟁 체험의 반복적 서사에 대해 김윤식은 ‘작가의 일상적 삶의 감각을 조직화하며 그 힘이 작품의 구성력으로 전이된다고 보고, 박완서의 창작 방법을 “기억에 의한 글쓰기”⁴⁾로 명명한다. 이와 달리 정호웅은 기억 일반론에 근거해 박완서의 전쟁체험 소설이 ‘전쟁의 원인, 전개양상 그리고 그 결과로서의 분단 상황 자체를

2) 김양선, 『증언의 양식, 생존·성장의 서사』,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15집, 한국문학이론과 비평학회, 2002, p.144.

3) 박완서의 전쟁에 대한 자전 체험이나 전쟁의 비극성에 대한 증언 욕망을 다룬 주요 연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소영현, 『복수의 글쓰기, 혹은 쓰기를 통해 살기』, 『박완서 문학 길 찾기』, 세계사, 2000.), 신수정, 『증언과 기록에의 소명』, 『소설과 사상』 18집, 고려원북스, 1997.), 이경훈, 『작가의 전쟁 체험의 문학의 핵심적 구조』, 『문학사상』 281호, 1996.), 백지연, 『폐허 속의 성장』, 『박완서 문학의 길 찾기』, 세계사, 2000.), 유종호, 『고단한 세월 속의 젊음과 증언』, 『창작과 비평』, 1977 가을호.

4) 김윤식, 『박완서론-천의무봉과 대중성의 근거』, 『한국 현대작가연구』, 문학사상사, 1991.

문제 삼고 있지 않다'는 점을 들어, 상처 치유의 진정한 방식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경험의 직접성에 기대어 대상과 일정한 거리를 두지 못해' 전쟁을 총체적으로 조망하는 데 실패⁵⁾했다고 비판한다. 박완서 소설을 둘러싼 이런 평가의 주요 흐름은 최근 연구에까지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러나 실제 이런 해석들은 기억의 중층적 의미를 충분히 고려하고 있지 못하다. 인간의 기억은 컴퓨터처럼 자료가 한 번 입력되면 언제든지 원본과 똑같은 것을 불러낼 수 있는 저장소가 아니다. 더욱이 회상⁶⁾은 결코 과거의 인지에 대한 모사가 아니며, 또한 과거의 현실에 대한 모사는 더더욱 아니다. 우리의 회상은 주관적이며, 고도의 선별적인, 회상의 상황에 좌우되는 재구성이다.⁷⁾ 이 과정에서 개인적 회상처럼 보이는 기억이 사실은 집단(적) 기억⁸⁾일 수 있다는 사실은 매우 중요하다. 그것은 회상이 사회적 연관속에서 형성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사회적 관계 틀의 소환이 개인적 회상의 전제 조건이라는 것이다. 개인적 회상들은 사회적으로 각인되어 있고, 지각은 집단적 특수성을 지닌다. “개인은 집단의 관점에서

5) 정호웅, 「상처의 두 가지 치유방식」, 『작가세계』, 1991 봄, pp.53-64.

6) 기억(Gedächtnis)과 회상(Erinnerung)을 학술적으로 엄밀히 구분해 사용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본고에서는 ‘기억’을 좀 더 포괄적 개념으로 사용하고, 회상은 주관적이고 개인적인 의미로 한정해 사용한다.

7) 베라 뉘닝의, 장진원의 역, 『현대 문화학의 컨셉들』, 유로, 2006, pp.213-214.

8) 기억과 관련, 본고에서 이론적으로 차용하고 있는 것은 집단적 기억에 관한 모리스 알브바슈의 사회학적 분석 틀이다. 1925년 『기억과 기억의 사회적 조건 Das Gedächtnis und seine sozialen Bedingungen』(1985)이라는 책에서 그는 모든 개인적인 회상은 집단적 기억이자 집단적 회상이라는 이론을 제기한다. 집단적 기억에 대한 알브바슈의 이론은 크게 세 영역으로 구분되는 데, 먼저 개인적 회상과 사회적 연관을 다루는 문제, 두 번째로 세대 간 기억의 형성과 기능에 대한 문제, 마지막으로 집단적 기억을 문화적 전승, 전통의 형성과 함께 논의하는 것 등으로 나뉜다. 이 글에서는 기억과 전후 정치 사회적 연관 속에서 기억이 집단적 기억으로 이행하는 과정을 주로 탐색하고 있다.

회상하고 집단의 기억은 개인의 기억들 속에서 현실화되고 분명해진다.”⁹⁾ 이런 모리스 알브바슈의 ‘집단적 기억’에 대한 사회학적 분석들에 비추보면 박완서의 한국전쟁에 대한 회상은 개인의 기억이라기보다는 당대의 집단적 기억에 가깝다. 이는 그의 소설 속 기억이 사회적 환경 속에서 제한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으로 회상을 순수한 개인적 과정으로 이해하는 동시대의 베르그송이나 프로이트의 기억 이론과 대비된다.

박완서는 전쟁의 극심한 후유증 속에서 사상에 심각한 위축을 경험했다. 특히 반공독재 체제의 형성은 주체의 ‘내면’을 왜곡하고 개별적(개인) 기억의 성찰을 불가능하게 하는 데, 이 과정에서 형성된 집단적 기억은 폐쇄적이고 억압적인 방식으로 한국전쟁을 회상하도록 강요한다. 이와 관련 앞서 박완서 소설의 자전적 경향에 주목한 강진호의 논의는 본 연구에 의미 있는 단서를 제공한다. 그는 박완서 소설이 능숙한 서사와 묘사로 전쟁기의 참상을 증언하는 문학적 성과를 획득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전망도 제시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사회적 억압과 반공주의에 있음을 지적하고 1990년 이후에야 비로소 그것에서 자유로워졌다는 말한다.¹⁰⁾ 이것은 극단적 반공체제에서 형성된 집단적 기억이 당대 집단의 필요와 이해 방향에 따라 기억을 선별적인 방식으로 재구성해왔다는 점에서 볼 때 매우 의미 있는 지적으로 생각되지만, 집단 기억의 다양한 양상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일정한 한계를 갖는다.

물론 박완서 소설은 한국전쟁이 안고 있는 비극성과 그 파괴력을 회상을 통해 복원하고 재현한다. 그러나 정작 중요한 것은 그 결과가 아니라 그러한 기억이 만들어지고 재현되는 방식이다. 본고에서는 이를 구체적으로 밝

9) 베라 뉴닝의, 장진원의 역, 앞의 책, p.218.

10) 강진호, 「반공주의와 자전소설의 형식 : 박완서를 중심으로」, 『국어국문학』 133호, 2003, pp.313-337.

히기 위해 ‘집단적 기억’ 이론을 토대로 박완서 소설에 나타난 전쟁 기억의 원리를 분석하고, ‘무엇이, 얼마나, 어떻게’ 재현되는지, 또한 왜 기억되는지를 살펴봄으로써 소설에 나타난 기억의 내적 원리를 규명하고자 한다. 알라이다 아스만은 『기억의 공간』에서 기억의 의미는 치유하기 위해, 책임을 전가하기 위해, 변명을 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한다. 중요한 것은 이때 기억은 개인과 집단의 정체성 형성에 본질적인 요소이고 갈등에서도 중요한 역할¹¹⁾을 한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박완서 소설에 나타난 한국전쟁에 대한 반복적 기억은 소설의 형식 차원을 넘어 소설을 만드는 계기이자 동력이라고 할 수 있다. 그것은 억압적 체험을 기억하려는 분명한 동기가 있기 때문으로 자신이 체험한 억압의 실체에 다가서는 것이다. 이는 한국전쟁에 대한 회상과 그곳에 남아 있는 상처, 그 치유과정을 추적하는 것으로 이 과정에서 독자는 한국전쟁이라는 민족 집단의 상처와 대면하게 된다.

2. 자전적 서사, 기억의 자장

박완서에게 “전쟁 현실을 어떻게 기억하느냐”는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1940년 전후 출생한 유년 세대에게 한국전쟁은 결국 기억에 의존할 수 밖에 없다. 이 세대 작가들이 보여주는 가장 보편적인 방법은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한 소년의 존재”를 설정하고 이후 “소년이 성인이 되어 충격적인 사건을 기억 속에 떠올리며 그 사건이 갖는 의미를 되새기는 회상의 시점 위에 서는 것”¹²⁾이다. 이런 회상의 방식은 과거와 동시에 현재를 의식하기 위한 것으로 과거에 대한 이해뿐 아니라 복원, 재인, 상기, 잔류 기억 등

11) 알라이다 아스만, 변학수와 역, 『기억의 공간』, 경북대출판부, 2003, p.60.

12) 조남현, 「소년의 시각과 그 회상」, 『소설문학』, 1987, pp.111-125.

여러 가지 기억 방식에 대한 설명을 요구한다는 점에서 과거에 대한 단순한 회고 취미나 복원 작업 정도로 치부할 수 없다.

특히 박완서 소설에서 회상은 자기를 발견하기 위한 전략이라는 점에서 각별한 의미를 갖는다. 일반적으로 회상은 자기의 은폐된 내면의 목소리를 해명하는 서술 방식으로 ‘고백’과 마찬가지로 진실과 결백을 주장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된다. 이는 자전적 경향을 띠는 자전적 소설이나 자서전¹³⁾의 형태로 나타나는 데, 그것은 자아의 표현 욕망에서 출발, 회상 주체로서의 ‘나’가 주관적 감정이나 경험적 사실을 진실하게 고백하는 내용에 있어서 공통적이다.¹⁴⁾ 중요한 것은 고백이 고백된 자기와 고백하는 현재의 자신을 분리하려는 욕망에서 비롯되었다는 사실이다.

『나목』 이후 계속해서 회상되는 장면은 이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한국 전쟁 동안 가장 안전한 곳으로 행랑채를 권했던 ‘이경’은 그 행랑채에 폭탄이 떨어져 오빠를 잃게 되고, 이 때문에 이경은 평생 죄의식 속에서 살아간다. 이후 어머니는 딸만 남겨 놓고 아들만 데려간 하늘을 저주하고 살아 남은 딸을 가슴에서 무참히 지워버린다. 아들의 임신출세를 위해 이중의 딸뚱으로 살아온 어머니에게 전쟁으로 잃은 아들의 죽음은 그 자체로 삶의 종결이다. 이런 고통의 에피소드는 『나목』에서 『그 산이 정말 거기 있었을까』에 이르는 동안 반복적으로 회상된다. 전쟁으로 두 오빠를 잃기 전까지

13) 필립 르죈, 윤진 역, 『자서전의 규약』, 문학과지성사, 1998, p.17. 저자는 자서전이 한 실제 인물이 자기 자신의 존재를 소재로 개인적인 삶 특히 자신의 인생의 역사를 중심으로 이야기한 산문으로 과거 회상형의 이야기로 정의 내리고 있다. 또한 작가의 상황과 화자, 주인공의 동일성 충족을 자서전의 핵심으로 정의한 바 있다. 본고에서는 자서전, 소설, 고백 같은 용어의 차이를 구명하기 보다 이들 모두가 주체의 기억에 의존하고 있다는 것을 밝히는 차원에서 서구 자서전 연구에서 사전적 권위를 갖는 『자서전의 규약』에 대한 세부 논의는 생략하였다.

14) 김미현, 『한국 여성 소설과 페미니즘』, 신구문화사, 1996, p.166.

오빠를 통해 세계를 인식하던 나(이경)는 오빠의 상실을 통해 살아남은 자로서의 ‘나’를 발견한다. 동시에, 전쟁이 지닌 파괴성과 그 영향을 온 몸으로 견뎌야 하는 현실(사회)을 받아들인다. 그것은 살아남은 자로서의 주체 형성 과정에서 딸을 인정하지 않았던 어머니와의 대립을 통해 잘 드러난다. 이처럼 박완서 소설 속 전기적 요소는 다른 자전적 소설과 달리 죄의식에 빠져 허우적대는 주체를 그리기보다 적극적 회상을 통해 현재의 자신을 호명하기 위한 한 집단 기억과의 투쟁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박완서에게 집단 기억은 고통의 사적 체험을 강화하는 기제로 작용한다.

『그 많던 싱아는 누가 다 먹었을까』와 『그 산이 정말 거기 있었을까』에서 스스로 증언자임을 주장하는 박완서는 폭력적인 시대일수록 문학이 ‘시대의 양심’ 역할을 담당하고, 부조리한 세계에 천착해 그것을 폭로하기 위해 억압에 항거해야 한다고 말한다. 여기서 억압의 실체는 어떤 구체적 정치권력이라기보다는 전쟁에 대한 집단 기억, 다시 말해 오히려 현실 모순의 실체를 가리는 이데올로기화된 기억이다. 때문에 ‘소설로 그린 자화상’이라 명명했던 앞서의 작품들은 박완서가 집단 기억의 자장에서 벗어나기 위한 증언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소설 속 인물들이 대개 허위적 규범이나 도덕관념을 내면화하는 것은 결국 집단적 기억이 갖는 억압적 요소에 억압된 자아의 단면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다. ‘이경’은 집단적 기억에 억압된 규범적 자아를 내면화할 수밖에 없고 그 규범의 허위성을 자각하는 순간 내면적 갈등을 겪게 된다. 이를 드러낼 수 없는 상황에서 그녀는 위선적 태도를 취할 수밖에 없다. 이것이 바로 박완서 소설에 작동하는 집단적 기억 방식이다. 회상을 통해 자신의 정체성을 발견하는 순간 동시에 은폐해야 하는 그녀의 모습은 기억의 억압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존재 자체이다.

박완서 소설이 작가 체험과 유사하고, 고백적이며, 증언적이라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특히 『부처님 근처』와 같은 소설은 박완서의 자전적 서사

로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엄격한 자서전의 정의에서 비취보면, 그녀의 소설을 곧바로 자서전으로 규정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 다만 박완서의 경우, 한국전쟁 당시의 기억을 억압하는 반공이데올로기 같은 집단 기억에서 벗어나기 위해 자서전의 형식을 빌어쓰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 소설에서 ‘나’의 오빠는 좌익운동을 하다가 적 치하에 좌익에서 탈퇴한 것이 밝혀져 총살당하고 아버지는 인민군에 동조하게 되지만 수복된 후 국군에 의한 고문 후유증으로 죽게 된다. 이어 모녀는 아버지와 오빠의 죽음을 ‘욕된 죽음’으로 생각하고 행불자로 처리한다. 이런 서사가 박완서 개인사와 얼마나 유사한가를 따지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 정작 중요한 것은 이 전쟁의 상처가 근본적으로 치유되지 않고 망각되어 간다는 사실에 대해 작가가 절망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어머니는 종교에 몰입하고 ‘나’는 자전적 소설을 쓰며 가까운 사람들과 소통하면서 아픈 기억을 애써 지우려 한다. 모녀는 ‘새끼를 낳고는 탯덩이를 집어삼키고, 구정물까지 싹싹 훔아 먹는 짐승처럼 앙큼하고 태연하게 죽음을 꿀꺽 삼키고’¹⁵⁾ ‘처자식만 알 착실한 남자와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또 낳아 기르며 살아’ 간다. 그들은 일상 속에서 고통스런 기억을 지워나간다. 그러나 이런 망각(상처)에 덧 씌어진 공간에 채워진 이데올로기와 경제개발에 따른 물질 욕망은 오히려 현재 자신들에 대한 비판적 성찰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타자의 고통을 들여다 볼 수 있는 회상 경로를 열어준다. 『복원되지 못한 것들을 위하여』에는 이런 박완서의 증언과 고백, 자전적 서사가 갖는 의미가 보다 구체화 된다. 이 소설은 1987년 10월 17일에 있었던 납북, 월북, 예술인 해금 조치를 소설적 모티프로 취하고 있는데, 한국 전쟁에 대한 내용을 『복원』이란 제목으로 한 잡지사에 응모해 최우수

15) 박완서, 『부처님 근처』, 『어떤 나들이』, 문학동네, 1999, p.87.

상을 받게 된 당선자가 당선을 사양하고 왜곡된 역사의 진실을 밝히려고 노력하다 좌절하는 모습을 그리고 있다.

소설가인 주인공은 죽은 스승 송 선생의 전집 후편에 실을 글을 부탁받는 과정에서 선생이 좌익 사상으로 인해 감옥에서 사형 당했다는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지만, 유가족과 주변의 묵시적인 동조로 그는 ‘북으로 납치된 아까운 소설가’로 윤색된다. 복원이 ‘깨진 간장종지 하나를 복원하는데도 그 파편들을 잃지도 보태지도 말고 고스란히 주워 모아’야 하며, ‘망가지고 흩어진 걸 복원하는 데 있어서 제 조각을 찾으려는 노력 없이 딴 조각으로 메운 건 진정한 복원’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소설가는 아버지의 작품집 발간 후면을 출세한 가족의 광고란으로 활용하려는 자식들의 생각에도 동의하지 않고 송선생의 생애 마지막을 사실대로 적어 첨부하려 한다. 그러나 자식들의 반대로 진실은 은폐된 채 선생은 납치로 기정사실화 된다. 이는 역사적 사건이나 사실들이 정치적, 개인적인 의도에서 얼마나 쉽게 왜곡될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그리고 이렇게 한번 왜곡된 역사나 사실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정당화됨으로써 진실과의 거리가 점점 멀어진다. 결국 『복원되지 못한 것들을 위하여』에서 주인공이 『복원』하려 했던 수기는 발표되지 못한다.

박완서의 소설에 나타난 사적 기억을 따라가다 보면 민족이나 국가처럼 시대의 집단 기억을 만나게 되는 데, 이는 자전적 서사가 사실은 집단적 기억을 통해 한 문화의 자기 서술 기능을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실제 박완서는 기억의 사회 생산 과정을 정확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일반적으로 공적 기억의 재현은 지배이데올로기와 부합해야 가능하다. 반면 사적 기억은 일상생활 중 만들어지는 것으로 기록되지 않고 대개 침묵된다.¹⁶⁾ 기록되는 것과 침묵되는 것, 기억되는 것과 지워지는 것 사이에서 박완서는 나름의 진실을 찾고 있었던 것이다. 한국전쟁과 관련해 지배적

기억은 역사에 의해 장악되고, 침묵되어진 것과 지워진 기억은 일종의 대항 기억으로 남게 된다. 대항 기억을 형성하려는 노력은 ‘압제하는 얹’ 속에서 무시되고 폄하되거나 차별되었던 ‘흩어진 기억’ 들을 조립하는 것으로 박완서는 무엇이 기억되고 어떤 것이 침묵되는지, 왜 기억이 부인되고 침묵되는지를 구체적으로 탐사하고 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소설 속 기억된 한국전쟁은 실체가 아니며, 박완서의 기억을 통해 새롭게 재구축된 세계라는 점이다. 이는 작가가 한국전쟁이라는 사건을 질서화, 구조화하고 전쟁과 동시대의 일상을 동일한 공간에서 인식하고 있음을 말해준다. 전쟁을 재앙이나 비참의 내포가 아닌 일상으로 인식함으로써, 한국전쟁의 시공간적 거리를 확보하고 회상을 통해 당대의 사회상을 들여다보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과거를 현재로 소환해 시간적 연속성을 확보하려는 이런 노력이 집단 기억의 자장 속에서 약화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3. 고향과 기억, 복원된 정체성

많은 경우 서사는 과거의 기억을 떠올리는 것에서 시작되고, 그 이야기의 대부분은 또한 특정한 개인이나 공동체의 기억에 의존한다. 이때 기억은 “이야기하는 사람에 의해 실제 행해지고 있는 변형이며 중국에 가서는 모든 이야기를 서로 엮어 짜는 그물”로 어떤 사건을 세대에서 세대로 계속

16) ‘기억’과 관련, 다양하게 분화된 개념을 확인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문맥의 개념적 차이로 구분해서 사용하고 있다. memoria(메모리아), mémoire collective(집단적 기억), soziales Gedächtnis(사회적 기억), lieux de mémoire(기억의 장소), kulturelles Gedächtnis(문화적 기억), kommunikatives Gedächtnis(소통의 기억), cultural memory(문화적 기억)

전해주는 전통의 연쇄가 된다. 이것은 때로 한국전쟁 같은 극단적 상처를 치유하기 위한 방법이 되기도 한다. 주지하는 것처럼 한국전쟁은 이념보다는 폭력으로 국민을 양분했으며, 그 유증(類症)은 상의병사의 몸에, 학살된 ‘빨갱이’ 가족들의 침묵에, 심지어는 일상의 제도화된 폭력에까지 각인되어 있다.¹⁷⁾ 작가는 이런 한국전쟁을 기억하고 회상, 전승함으로써 개인적 또는 집단적 상처를 치유해 간다. 이점에서 소설 속 ‘고향’에 대한 기억이 갖는 의미는 각별한 데, 실제 박완서는 ‘고향’을 의식화하는 과정에서 전쟁을 자연스럽게 회상한다.¹⁸⁾

종중산이라는 야크막한 뒷동산에 오르면 바로 발아래로 바다가 보이고 바다 건너로 북쪽 땅이 보였다. 섬과 육지 사이에 낀 바다는 강 넓이 밖에 안 돼 꼭 한강 이쪽에서 저쪽을 바라보는 정도의 거리감 밖에 느껴지지 않았다.¹⁹⁾

『엄마의 말뚝』에서처럼 과거 ‘고향’은 언제나 현재화된 공간으로 가깝게 인식된다. 유년기의 고향집은 가정의 권위가 살아 있고, 건강한 웃음 속에 따뜻하면서도 인간다움을 소중히 여기는 가족들과의 추억 공간으로 기억된다. 문제는 이 작품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가깝고 생생하게 기억되는 고향을 더 이상 돌아갈 수 없다는 데 있다. 고향땅 개풍군을 가장 가까이에서 바라보고 오빠의 뺨가루를 그 곳 바다에 뿌림으로써 죽은 아들을 바다위에 띄어 보낸 고통의 공간, 고향은 언제나 한국전쟁의 비극적 사건을 떠올리게 하는 장소이다. 그래서 박완서 소설 속 인물들의 고향에 대한 동경은 전쟁에 따른 피난민 생활, 상처를 안고 궁핍하게 살아가는 주체의 모습을

17) 전정성, 『기억과 전쟁-미화와 추모사이에서-』, 휴머니스트, 2009, p.17.

18) 나리타 류이치, 한일비교문화세미나 역, 『고향이라는 이야기-도시공간의 역사학』, 동국대학교출판부, 2007, p.184.

19) 박완서, 『엄마의 말뚝』, 세계사, 1995, p.118.

확인하는 경로가 된다. 그래서 ‘현저동’의 삶은 고향 ‘박적골’을 회상하는 순간 따라온다. 어머니가 처음으로 말뚝을 박은 사대문 밖의 현저동 셋집은 오줌과 땀, 우거지가 한데 섞은 물이 고여 있는 층층다리, 겨우 비비고 지날 만한 실 같은 골목, 첫 번째 층층다리 보다 더 불규칙하고 가파른 오르막길 위에 있는 초가집 문간방이다. 『엄마의 말뚝·1』에서 현저동은 모순과 위선이 난무하는 비윤리적인 공간으로 그려진다. 이 비루한 모순성과 이중성이 주는 혼란과 대면할 때마다 박완서는 ‘박적골’의 자연과 고향집이 안겨다준 자유와 존재감이 충만한 고향을 회상한다.

예의 현저동과 박적골의 대비는 ‘똥누기’ 모티프를 통해 잘 드러난다. 박적골에서 ‘똥’은 농사의 중요한 거름으로 생산의 원천이다. 똥이 자연적이고 친근하다보니 박적골에서는 유독 똥과 뒀간에 관한 이야기 많다. 반면 전쟁 이후 서울에서 ‘똥누기’ 체험은 신분 차이를 인식하게 만드는 소외의 행위일 뿐으로 처음 배운 ‘셋방살이 법도’가 바로 변소 사용법이다. 박완서에게 박적골은 자신의 양식을 스스로 생산하는 자작농이 대부분으로 빈부의 격차가 없고 노동의 소외가 없는 이상적 공간으로 기억된다. 그래서 “이 세상에 부자와 가난뱅이가 따로 있다는 걸 알 기회가 없었다”²⁰⁾고 말한다. 고향을 회상하며 현실 모순을 읽어내는 이런 회상 방식은 『그 많던 싱아를 누가 다 먹었을까』에서도 반복된다. 박적골이 먹을 것과 놀 거리를 공급해 주는 삶의 공간이었다면, 전쟁 후 서울은 고독의 공간이며, ‘짐승의 시간’을 견뎌야 하는 공간으로 그려진다. 주인공은 고향집 뒤란에서 개나리 울타리, 돌배나무와 개살나무, 앵두나무가 둘러진 유년의 뜰에서 “그곳은 더 좋은 세상도 더 나쁜 세상도 상상할 수 없는 충족된 나의 “온 세상”²¹⁾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고향에 대한 긍정적 기억과 함께 따라오는 피난살이 동안

20) 박완서, 『그 많던 싱아는 누가 다 먹었을까』, 세계사, 2008, p.21.

21) 박완서, 『나의 삶, 나의 문학』, 『박완서 문학 길 찾기』, 세계사 2000, p.23.

의 기억은 더욱 고통스럽다.

이처럼 박완서에게 한국전쟁이라는 미증유의 사건은 고향을 더욱 이상적 공간으로 기억하게 만든다. 이상화된 고향과 전쟁으로 인해 폐허가 된 고통스런 현실은 언제나 함께 환기되며, 이상적 삶의 공간으로 규정된 유년기 고향 모습이 반복적으로 확장되고 재현됨으로써 현실에 대한 대안적 공간을 상상하게 된다. 그러므로 박완서의 ‘고향’은 정체성을 회복하기 위한 ‘토포필리아’적 성격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토포필리아²²⁾는 사람과 장소 또는 배경의 정서적 유대로 물질적 자연환경에 정서적으로 묶여 있는 인간을 정의하는 데 유효하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해당 장소가 이와 연관된 특별한 사건이 발생했거나 이를 어떤 상징으로 지각²³⁾한다는 점이다. 박완서에게 고향은 한국전쟁이라는 사건을 기억하게 하는 상처 입은 자아의 정체성을 환기시키는 장치인 셈이다.

이는 고향과 기억과의 관련성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일반적으로 공동체의 구성원들은 고향을 통해 현재나 미래에 대한 위기감을 공유하고, 어떤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고향에 대한 기획(이상화된 공간)을 통해 이를 극복한다. 고향은 선험적으로 부여된 실재가 아니라 호소를 통해 수립된 공동체였기 때문에 고향의 실체화는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난다.²⁴⁾ 여기서 주목할 것은 고향을 기억하는 방식이 정체성과 관련된다는 점이다. 기억은 세계에 대한 인식과 자아 정체성이 성립되기 위한 근본 요건으로, 이미 지각한 것을 기억하며 새로운 지각과 연결시키는 작업이 전제되지 않는다면 시

22) 토포필리아를 재현하고자 할 때는 대체로 공간, 장소, 풍경과 결부된 그런 추억의 현장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회상의 서술기법이 동원된다. ‘고향’처럼 시간적으로나 공간적으로 그 대상과 멀리 떨어져 있을 때 기억 또는 회상을 매개로 자연스럽게 만들어 진다.

23) 이-푸 투안, 이옥진 역, 『토포필리아』, 에코리브리, 2011, p.146.

24) 나리타 류이치, 한일비교문화세미나 역, 앞의 책, pp.4-9.

간의 흐름 속에서 자아 정체성은 유지될 수 없다. 또한 자신의 과거에 대한 기억이 없다면 자아 인식은 형성되거나 보존되기도 어렵다. 기억은 개인의 정체성뿐만 아니라 집단의 정체성 형성과 보존을 위해서도 필수적이다. 이와 관련 알박스는 인간들을 결속시키는 가장 중요한 수단으로 공동의 기억을 꼽으며, 집단 기억이 집단의 단결 및 존속에 직접적으로 관련된다고 주장한바 있다.²⁵⁾

『돌아온 땅』은 고향과 개인적, 집단적 기억, 정체성의 연관성을 잘 보여주는 작품이다. 월북한 삼촌 때문에 국가기관에 취직하려던 아들과 독일로 유학을 떠나려던 딸이 모두 신원조회에 걸려 뜻을 이루지 못하는 장면이 나온다. 그 과정에서 딸과 어머니는 아버지가 살았고 죽음을 당한 고향을 방문하게 된다. 그러나 이전 아버지와 삼촌이 살았던 고향에서 그들을 기억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기억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그동안 자식들에게 숨겨왔던 남편의 죽음에 대한 진실이다. 남편은 신념 있는 민주주의 투사도 덕망 있는 농촌지도자도 아니다. 그는 마을에 인민군이 진주하면서 어디에 숨을까 관망하다가 붙들려 인민재판에 회부되고, 어리숙한 사람이 박수를 치면서 동네 최고 반동으로 몰려 미루나무에 매달려 총살 당한다. 좌익에게 처형당한 남편의 죽음이 그동안 지방의 덕망 있고 용기 있는 반공 지도자로 각색되었던 것이다.

결국 두 모녀의 고향 방문은 집단 기억에 의해 억압되었던 사적 기억을 복원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동시에 기억이 사회 역사적 조건과 억압에 의해 형성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처럼 박완서의 회상은 극히 개인적인 동기에 의해 추동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개인적 동기가 사회 역사적인 조건들과 연관되어 있고 또 그것을 내색할 수 없었던 억압의 계

25) 알라이다 아스만, 변학수 외 역, 앞의 책, p.165.

기들과 관계함으로써 동시대의 ‘억압의 체험’ 일반을 포괄해 낸다. 이로 인해 작가의 개인적 체험이 되살려진 박완서의 소설은 한 사회의 집단적 기억이나 역사의 기록으로 읽힌다. 관련해 앞선 권명아의 논의는 주목할 만하다. 그녀는 박완서 소설을 ‘자기상실’의 경험과 ‘참자기’를 찾기 위한 여정의 서사로 보고, 우리 근현대사의 주체 형성 과정을 보여준다고 평가한다. 즉 “‘기억으로서의 소설’이라는 장르적 특질을 가장 잘 체현하고 있는” 박완서의 소설들에서 “과거의 기억은 단지 체험의 반복과 기록에의 소명에 의해 추동되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우리 삶에 대한 끝없는 성찰의 동력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참된 자기를 찾아가는 여정”이라는 것이다.²⁶⁾ 결국 박완서의 고향에 대한 기억은 개인적 기억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한국전쟁의 고통에서 야기된 정체성 상실에 따른 복원의 기억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4. 신체와 기억, 기억 장소

기억하기란 특정한 장소를 선택해서, 의식 속에 간직해 두려는 사물에 대해 정신적인 이미지를 만들어내고 그 이미지를 예의 의식적 장소와 결부시키는 절차로 이루어진다.²⁷⁾ 물론 기억을 보존하는 장소가 실제로 보관의 기능을 담당하는 방이나 집, 상자 같은 표상으로만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피에르 노라는 과거의 연속성을 보여주는 기억의 장소를 위인전, 기념비, 건축물, 텍스트 등의 다양한 형식에서 찾아낸바 있다.²⁸⁾ 이런 맥락에서 보

26) 권명아, 『박완서-자기상실의 ‘근대사’와 여성들의 자기 찾기』, 『역사비평』 45호, 1998, pp.390-391.

27) 알라이다 아스만, 변학수 외 역, 앞의 책, p.29.

면, 기억의 장소는 우리의 일상을 둘러싼 모든 사물의 영역으로 확장될 수 있다. 박완서 소설에는 이처럼 한국전쟁을 기억하기 위한 다양하고 구체화된 장소가 제시된다. 이 장소는 작가의 개인적 삶과 역사, 집단적 기억과 개인적 기억이 맞부딪치는 무대이다.

흔히 개인적 회상은 주체에게 기쁨과 고통의 이중적 감정을 동반한다. 중립적이며 감정이 결여된 개인적 기억은 존재하기 어렵다. 이때 고통의 기억을 억압하고 유쾌했던 기억에 집착하는 것은 당연한 데, 이는 자발적 기억과 비자발적 기억의 문제와 연관된다. 자발적 기억은 한국전쟁이 1950년에 발생했다는 사실처럼 지적 노력으로 쉽게 재생되는 기억을 말한다. 이와 달리 비자발적 기억은 주체의 자유의지와는 무관하게 기억되는 방식으로 주체의 의식 밖, 주체의 몸이나 외부 대상에 놓여 있으며, 흔히 정신적 외상처럼 고통스런 기억을 수반한다. 만약 기억을 자유의지로 떠올리거나 밀어낼 수 있었다면 박완서는 결코 한국전쟁을 떠올리지 않았을 것이다.²⁸⁾

작가는 기억 장소를 통해 한국전쟁과 관련한 비극을 개인적 체험에 대한 기억을 넘어 역사적, 사회적인 맥락에서 기억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동안 박완서 소설은 사적 체험을 작중 현실로 재현한다는 점 때문에 주목을 받아왔지만, ‘기억으로서의 소설’이라는 장르적 특질을 가장 잘 체현한 박완서의 가장 큰 미덕은 오히려 상실되어가는 전쟁 기억의 흔적을 재구성하는 데 있다. 전쟁에 대한 비자발적 기억을 가장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소는 바로 ‘신체’이다. 실제 기억이 만들어내는 슬픔과 고통의 감정은 마음의 문제이면서 동시의 몸의 문제로, ‘살아온 몸’(lived body)은 개인과 공동체의 기억이 깃드는 ‘기억의 터’³⁰⁾라고 할 수 있다. 그럼 점에서 기억 장소

28) 피에르 노라, 김인중 외 역, 『기억의 장소』 2, 나남출판, 2010.

29) 몸문화연구소 편, 『기억과 몸』, 건국대학교출판부, 2008, pp.40-41.

30) ‘기억의 터’는 프랑스의 역사학자 피에르 노라가 제시한 개념이다. 여기서 ‘터’는 구체

로서 신체는 주목할 만하다. 신체는 그 확실성과 환원 불가능성 때문에 시대적 폭력의 속성과 직접적으로 관련된다.

나는 부끄러워할 수조차 없었다. 불쌍한 어머니, 그러나 내가 어떻게 도울 수 있단 말인가... (중략)... “이년아, 똑똑히 봐둬라. 이 인정머리 없는 독한 년아. 이 에미 꼬락서니를 봐두란 말이다. 어디 양갈보 짓이라도 해먹겠나. 어느 눈먼 양키라도 템벼야 해먹지. 아무리 해먹고 싶어도 이년아, 양갈보 짓을 어떻게 혼자 해먹니. 우리 식군 다 굶어 죽겠다. 죽었어. 이 독살스러운 년아, 이 도도한 년아. 한강물에 배 떠나간 자국 있단? 이 갇잡은 년아.”³¹⁾

『부끄러움을 가르칩니다』는 신체를 통해 한국전쟁이 어떻게 기억되는지를 잘 보여준다. 전쟁 중 ‘나’의 마을 가까이에 미군부대가 진주하게 되자 마을은 급격하게 기지촌화 되면서 순결이나 윤리 의식은 상실되고, 동생들의 허기로 상징되는 물질주의가 지배하는 공간으로 변질된다. 어머니의 신경질이 늘어가며 마침내 파마장이를 데려와 ‘파마 할 것을 종용’하기에 이른다. 늙은 자신은 ‘양갈보 짓’을 할 수 없으니 딸에게 매음을 강요하는 것이다. 신체와 전쟁을 기억하는 이런 방식은 『그 살벌했던 날의 할미꽃』에서도 반복된다. 달래마을 분교에 주둔한 미군들은 “색시 해브 예스?”를 외치며 다니고, 마을 여인들은 두려움에 혼자 있지 못하고 노파의 마을에 모여 밤을 지낸다. “양코배기들의 색시 해브 예스? 색시 해브 예스가 발정한 맹수의 울부짖음처럼 절박하고 위협적”³²⁾인 날 젊은 여인들은 정조를 잃느니 차라리 죽겠다고 생각한다. 이 상황에서 산신제를 주관할 때의 엄숙

적 장소를 지칭한다기보다는 기억을 환기시키는 기능을 하는 장소, 사물, 상징, 기호를 총칭하는 개념이다.

31) 박완서, 『부끄러움을 가르칩니다』, 『부끄러움 가르칩니다』, 문학동네, 2000, pp.316-317.

32) 박완서, 『그 살벌했던 날의 할미꽃』, 『배반의 여름』, 문학동네, 2006, p.284.

과 위엄을 지닌 노파는 자신이 양색시 역할을 대신 하겠다고 화장을 한다. 그러나 미군들은 “칠남매에게 진액을 다 빠리고 이제 늑골과 상점할 만큼 말라붙은 지 오랜 젓가슴과, 겹겹의 주름 사이에 칠남매를 길러내느라 늙어나다 못해 터졌던” 노파의 뱃가죽을 보고 웃고 만다.

『가없는 내 새끼 여기 있었구나. 꼼짝 말아. 다 내가 당할 테니』

어머니의 떨리는 손이 다리를 감싸는 시늉을 했다. 그때부터 어머니의 다리는 어머니의 아들이었다. 어머니는 온몸으로 그 다리를 엄호하면서 어머니의 적을 노려보았다. 어머니의 적은 저승의 사자가 아니었다.³³⁾

대를 이어 지속되는 전쟁의 상흔을 눈오는 날 사고로 쓰러진 어머니의 혼수상태를 통해 보여주는 『엄마의 말뚝』 또한 기억 장소로서 훼손된 신체를 확인할 수 있는 작품이다. 어머니는 수술 후 전신이 혼미한 상태에서 전쟁 때 죽은 아들의 환영을 보고 헛손질 하며 누군가에게 강하게 항의한다. 광기에 가까운 몸부림에서 독자는 그동안 평온을 가장해왔던 어머니의 고통을 느낄 수 있다. 20여 년간 의용군으로 끌려간 오빠의 생사를 건 탈출과, 투병, 그리고 전향과 죽음에 이르는 고통스런 과정을 혼수상태에 빠진 신체는 온전히 기억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녀에게 한국전쟁에서 희생된 아들의 죽음은 시간의 경과로 치유할 수 없는 상처이며, 그것은 언제나 현재성을 띤 고통으로 어머니의 삶 자체를 규율해 왔다. 박완서는 이 어머니의 죽음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정말로 억울한 것은 죽은 그들이 아니라, 그 죽음을 목격해야 했던 자신일지 모른다고 생각한다. 그것은 일종의 집단 기억으로 사적 기억을 통제하고 억압하며 그것에서 탈주하는 것은 불가능함을 말해준다. 작가는 ‘그 사실을 소리 없이 삼켜야만 했던 자신이 이제 그

33) 박완서, 『엄마의 말뚝·2』, 세계사, 1995, p.59.

들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싶어 선택한 것이 바로 소설이고, 그것을 통해 소리 내어 곡'³⁴⁾이라도 해야 한다고 말한다. 전쟁의 고통을 목격하고 그 기억 속에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자각하는 것, 이것은 바로 기억을 통해 상처를 치유하는, 전쟁의 응어리를 회상으로 풀어내는 박완서의 기억 방식이다.

『겨울 나들이』에도 상처를 직접 대면하며 전후 분단 사회의 고통과 이를 수용하는 방식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다. ‘나’는 전쟁을 겪은 남편의 삶을 통해 전쟁의 상흔을 간접 경험한 인물로 전쟁 중에 이북에 아내와 노부모를 남겨두고 딸 하나만 데리고 월남한 화가와 결혼 하지만, 남편이 북에 두고 온 아내를 생각하며 딸의 모습을 그리고 있는 장면을 목격하면서 허망한 겨울 여행을 떠나게 된다. 여행 중 그녀는 ‘도리도리 할머니’를 만나는 데, 할머니의 며느리에게서 그녀가 이십오 년간 ‘도리머리’를 흔들며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된 사연을 듣게 된다. 전쟁 중 인민군이 마을을 점령하자 남편을 피신시킨 후, 할머니는 아들의 행방을 ‘모른다’고 교육 받는다. 어느 날 인민군과 맞닥뜨린 할머니는 두려움에 모른다고 비명을 질렀고 엉겁결에 뛰어나간 아들은 인민군의 총에 맞아 죽게 된 이후, 이십오 년을 도리질을 해가며 살아왔다는 것이다. 며느리는 할머니가 ‘모른다’는 도리질의 ‘대사업’을 완수하시고 돌아가실 날까지 잘 살피겠다고 말한다. 박완서는 이런 회상을 통해 한국전쟁의 상처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음을 상기시킨다.

『그 산이 정말 거기 있었을까』의 여주인공과, 어머니, 오빠, 율케, 두 조카들의 이야기는 ‘소설로 그린 자화상’이란 부제에서도 알 수 있듯이 박완서 가족의 모습과 닮아 있다. 『목마른 계절』 또한 피난지의 상황이 거의 『그 산이 정말 거기 있었을까』와 유사하게 그려지는 데, 등단작 『나목』부

34) 박완서, 『나에게 소설은 무엇인가』, 『우리 시대의 소설가 박완서를 찾아서』, 2002, p.27.

터 계속된 전쟁 체험에 대한 기억은 2장의 자전적 서사에서 살펴본 것처럼 그녀의 작품 세계 전반을 지배한다. 이처럼 같은 이야기들이 여러 작품을 통해 반복되는 것은 박완서가 의식적으로 기억에 의한 소설쓰기를 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한국전쟁을 회상케 하는 집단 기억의 구속력 때문이다. 그녀의 기억 가운데 가장 고통스러웠던 전쟁에 대한 기억은 기억 바깥에 존재하는 망각의 영역마저도 기억의 영역으로 끌어들인다. 박완서가 스스로 밝힌 것처럼 죽음에 무서운 것은 “기억의 집인 육신이 소멸한다는 사실 때문”이다.³⁵⁾ 이런 언술의 배후에는 자신이 경험한 것을 기억할 수 있을 때 소설로라도 남겨야 한다는 절박감이 배어 있다. 이는 정직한 기억, 솔직한 고백, 사실대로의 자서전을 쓰고 싶다는 욕망을 반영하지만, 결국 박완서에게 소설이 하나의 ‘자기-서술’이며 허구적 서사화의 한 양상으로 개인의 경험 세계와 가능 세계를 초점화하는 기억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작가에게 과거란 ‘허구적으로 재구성된 기억’과 ‘기억되지 않은 감춰진 무엇’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5. 결론

박완서 소설은 한국전쟁의 비극성과 전후 이데올로기의 기억이 압축된 장소이다. 특히 작가와 그 가족의 사적 체험에 대한 기억은 박완서가 소설을 쓰는 이유인 동시에 목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선 논의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그녀의 회상은 개인적 기억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집단적 기억에 대한 대항적 성격을 갖는다. 그것은 전쟁 폭력성에

35) 박완서, 『나의 삶, 나의 문학』, 『박완서 문학 길 찾기』, 세계사, 2000, p.26.

대한 증언의 성격을 보여주며, 이데올로기의 허위성을 비판하기 위한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박완서는 상실될 위기에 처한 고통스런 전쟁 기억의 흔적을 찾아 그것을 재구성한다. 비극이 망각되는 것에 이의를 제기하며, 개인적 기억과 집단적 기억이 부딪치는 지점을 날카롭게 응시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박완서는 회상의 방식을 통해 자기를 발견한다. 회상은 자기의 은폐된 내면의 목소리를 해명하는 서술 방식으로, 박완서에게 회상은 고백처럼 진실과 결백을 주장하기 위한 수단이다. 대부분의 고백과 자전적 서사가 죄의식에 함몰되거나 자기를 발견하는 선에서 멈추지만, 박완서의 회상은 사적 기억을 억압하는 집단 기억에 대한 저항으로까지 나아간다. 다시 말해 단순히 한국전쟁을 기억하는 차원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당대의 기억과 망각, 욕망의 교차와 갈등 지점을 정확히 짚어낸다. 또한 전후 반공 이데올로기의 억압 속에서 주체의 내면을 왜곡하고 개별 기억의 성찰을 불가능하게 하는 집단 기억의 폐쇄적이고 억압적인 측면을 잘 보여준다. 때문에 박완서 소설 속 전쟁 기억은 더 이상 개인 체험의 회상이 아닌, 특수한 역사적 국면, 일제 식민지, 한국전쟁, 반공주의에 입각한 군사독재 체제와 같은 시대 상황에 육화된 주체로서의 개인을 호명하고 복원해 내며, 역사적 계기로 인한 억압의 기억, 은폐된 자아를 현실의 맥락에서 불러내고 있다.

이 과정에서 박완서는 ‘고향’이라는 기억 장소를 활용한다. 물론 ‘고향’에 대한 기억은 왜곡되고 변형되어 있다. 그러나 박완서의 ‘고향’에 대한 기억은 개인 체험을 사실적으로 서술하는 차원을 넘어 전후 비극적 사회 현실에 대한 인식의 경로를 열어준다. 그녀가 회상과 기억을 통해 보여주는 것은 전후 비극적 현실 공간으로, 이때 한국전쟁의 상처를 고스란히 담고 있는 훼손된 신체는 대표적인 기억 장소가 된다. 박완서는 한국전쟁에

의해 훼손된 신체를 통해 사적 기억 장소에서 사회 역사적 맥락을 읽어내는 것이다. 이런 작가의 기억 장소는 ‘기억으로서의 소설’이라는 장르적 특질을 가장 잘 보여준다.

마지막으로 박완서 소설 속 회상을 과거의 사적 기억으로 볼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기억하려는 강력한 동기 속에서 되살려진 것이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것은 집단적 기억에 가려진 ‘억압의 체험’을 잊지 않으려는 강한 동기를 지닌 것으로 작가에게 소설은 과거의 체험이 복원되는 유일한 기억 장소이다. 체험적 사실을 은폐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가부장제 이데올로기나 분단 이데올로기 같은 전후 한국사회를 지배했던 집단 기억 때문이다. 박완서는 내면적 자아를 억압하고 규범적 자아에 동일화되기를 강요했던 집단 기억의 생산 과정을 탐색하면서, 기록되는 것과 지워지는 것, 기억되는 것과 망각되는 것의 극명한 대비를 통해 집단 기억의 실체를 들여다보고, 강요된 지식과 폄하된 또는 흩어져 있던 기억들을 조립하고 재구성하며 침묵되고 망각되었던 기억을 복원해 낸다.

【참고문헌】

1. 기본 자료

- 박완서, 『박완서 소설전집 1-17』, 세계사 2003.
 ———, 『배반의 여름』, 문학동네, 2006.
 ———, 『우리 시대의 소설가 박완서를 찾아서』, 웅진지식하우스, 2002.
 ———, 『박완서 문학 길 찾기』, 세계사, 2000.
 ———, 『부끄러움 가르칩니다』, 문학동네, 2000.
 ———, 『어떤 나들이』, 문학동네, 1999.
 ———, 『그 많던 싱아는 누가 다 먹었을까』, 세계사, 2008.
 ———, 『엄마의 말뚝』, 세계사, 1995.

2. 논문 및 단행본

- 강진호, 『반공주의와 자전소설의 형식 : 박완서를 중심으로』, 『국어국문학』 133호, 2003, pp.313-337.
 권명아, 『박완서-자기상실의 ‘근대사’와 여성들의 자기 찾기』, 『역사비평』 45호, 1998, pp.390-391.
 김미현, 『한국 여성 소설과 페미니즘』, 신구문화사, 1996, p.166.
 김양선, 『증언의 양식, 생존·성장의 서사』,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15집, 한국문학이론과 비평학회, 2002, p.144-165.
 김윤식, 『박완서론-천의무봉과 대중성의 근거』, 『한국 현대작가연구』, 문학사상사, 1991.
 나리타 류이치, 한일비교문화세미나 역, 『고향이라는 이야기-도시공간의 역사학』, 동국대학교출판부, 2007.
 몸문화연구소 편, 『기억과 몸』, 건국대학교출판부, 2008.
 베라 뉘닝외, 장진원의 역, 『현대 문화학의 컨셉들』, 유로, 2006.
 신수정, 『증언과 기록에의 소명』, 『소설과 사상』 18집, 고려원북스, 1997, pp.227-246.
 알라이다 아스만, 변학수외 역, 『기억의 공간』, 경북대출판부, 2003.
 유종호, 『고단한 세월 속의 젊음과 증언』, 『창작과 비평』, 1977 가을호.
 이경호, 권명아 외, 『박완서 문학의 길 찾기』, 세계사, 2000.
 이경훈, 『작가의 전쟁 체험의 문학의 핵심적 구조』, 『문학사상』 281호, 문학사상사,

1996, pp.264-273.

이-푸 투안, 이옥진 역, 『토포필리아』, 에코리브리, 2011.

전정성, 『기억과 전쟁-미화와 추모사이에서-』, 휴머니스트, 2009.

정호웅, 「상처의 두 가지 치유방식」, 『작가세계』, 1991 봄, pp.53-64.

조남현, 「소년의 시각과 그 회상」, 『소설문학』, 1987, pp.111-125.

피에르 노라, 김인중외 역, 『기억의 장소』 2, 나남출판, 2010.

필립 르죈, 윤진 역, 『자서전의 규약』, 문학과지성사, 1998.

Abstract

A study on the memory of the Korea War and the place
- Focus on Park wan-seo's novel -

Lee, Pyeong-Jeon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amine the aspect of Korean War and the memory on the novel of Park, wan-seo. Most of the previous studies mainly discussed Park's memory for the Korean War in terms of the recall. However, the memory in this novel might be the collective memory rather than the personal memory. In this case, the collective memory proved that retrospection is limited to the social; the writer still effectively describes the tragedy of an ethnic group by tracking the healing process, injure, and oppression to be left at the place and memory that the events happened through the writer's personal memory for the war. Her novel shows the closed and oppressive aspects of the collective memory that make it impossible to reflect the personal introspection and distort the look deep into ourselves under the pressure towards ideology of anticommunism after the war. Upon the necessity and understanding for the group, this makes the memory to be restructured selectively, and oblivion makes it to be easily used to another aspect of the memory. Experience of the war is no more a personal one and that will remember or restore the individual as each subject in the middle of the age such as a specific historical conjuncture, Japanese colonial rule, Korean War and a military political system based on the anticommunism This is the memory to restore the oppressive memories, covered up ego in the same context due to the historical opportunity. With a notice of processing collective memory, Park, wan-seo enables us to look into the truth for the collective memory through the between recorded and erased things like public and personal memory or between remembered and forgotten things. She puts together the imposed knowledge and the memories which are scattered,

discriminated, ignored, and derogated, and she also specifically reproduces why the memory is denied and forgotten in her novel. She is trying to restore the identity by remembering the home, and allow meeting the collective memory and the historical facts of that time by remembering the body scar through the war.

Key Word : The Korean War, memory, remembrance, personal memory, collective, memory, place, the ideology of anticommunism, oblivion, reappearance

성명 : 이평전

소속 : 서원대학교 교양학부 조교수

주소 : (361-742) 충북 청주시 흥덕구 무심서로 377-3 서원대학교 미래창조관 교양학부 사무실

전화 : 043-299-8475 / 010-9308-3824

메일 : pyeoung2@hanmail.net

이 논문은 2013년 11월 15일 투고되어
2013년 12월 6일까지 심사 완료하여
2013년 12월 10일 게재 확정됨.